

반려동물과 즐기는 할로윈 캠핑

임실군, ‘반려동물 동반 오수 할로윈 펫페스타’ 성황리 개최

임실군이 할로윈 시즌을 맞아 지난 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에서 열린 ‘반려동물 동반 오수 할로윈 펫페스타’가 가족 단위 관광객과 반려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할로윈 캠핑’을 주제로 캠핑장 내 22개 사이트가 모두 예약되는 등 반려견 동반 가족 단위 캠핑족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10월 31일에는 18개 사이트에 50여 명의 참가자와 20여 마리의 반려견이 방문했고, 11월 1일에는 22개 사이트가 전부 예약되어 70여 명의 캠퍼와 23마리의 반려견이 함께하며 활기를 더했다.

또한 사전 예약 없이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도 30여 명이 추가로 참여해 총 150여 명이 참여하는 등 현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행사장 곳곳은 할로윈 분위기로 꾸며졌으며, 특히 반려동물 인식표 만들기 △반려동물 행동 교정 치료 △펫 기본 미용 시연 등 반려동물 맞춤형 부스와 △페이스 페인팅 △캐리커처 △푸드트럭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돼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매일 저녁 메인무대에서는 전문 MC가 진행하는 소규모 레크리에이션과



임실군이 할로윈 시즌을 맞아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에서 열린 ‘반려동물 동반 오수 할로윈 펫페스타’가 가족 단위 관광객과 반려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반려동물 훈련사 초청 토크쇼, ‘반려동물에게 전하는 편지’ 낭독이 이어지고 카라반존에서는 캠프파이어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불멍 힐링 타임’이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임실군과 원광대 RISE 사업단이 공동 주관했으며, 양 기관은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위한 도약의 목표로 지난 8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려동물 산업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연 친

화적 캠핑장으로 지난 7월 개장 이후 석 달 만에 1,000여 명이 넘는 방문객과 500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다녀가며 반려인들의 힐링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네이버를 통해 사전 예약 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 및 문의는 대표번호 010-8239-3119 또는 0507-1433-0976로 하면 된다.

심 민 군수는 “이번 행사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울리며 반려 문화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친화 도시 임실군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도복춤, 태평소, 하모니카, 하프, 방송댄스 등 7개 팀이 무대에 올라 1년간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박수와 호응을 받았다.

또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과 교육발견특구 홍보 전시가 함께 열려 배움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이날 함께 운영된 체험부스에서는 자개 그림책 만들기, 리우저블컵 꾸미기, 캘리그래피, 다육화분 제작, 디지털 문해 기기 체험, VR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큰 인기를 끌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 성료

순창군이 지난 1일 향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순창군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을 성황리에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년 동안 추진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군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배움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평생학습 수강생과 강사, 학습동아리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해 순창의 평생학습 문화를 한층 풍성하게 만들었다.

행사는 식전 장구공연을 시작으로 개막식, 성과발표회, 전시·홍보관, 체험부스 운영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세대와 분야를 넘어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며, 배움이 주는 즐거움과 성취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성과발표회에서는 민요, 플루트, 진

원광대-전남대 외국인 유학생 초청 남원문화체험 교류행사

남원시는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원광대와 전남대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100여 명을 초청해 ‘남원 문화체험 교류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남원의 대표 문화와 관광자원을 직접 체

험하면서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대학과 남원시 간의 교류·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운봉읍 ‘희망치 앓농장’에서 산양 유제품 만들기과 교

감 체험을 시작으로, 광한투원 내 화인당 한복을 입고 문화해설과 함께 광한투를 둘러보며 전통문화와 맛을 체험했다.

이어 피오리움 미디어아트 감상과 남원시립 강병중 미술관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며 남원이 품은 예술적·문화적 감성을 가까이 느꼈다.

/남원=김기두 기자

바이오 뷰티기업 해외 진출 돕는다

남원시, 해외시장 공략 세미나·기업 네트워킹 행사 가져

남원시는 2026년 바이오 뷰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31일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주관한 ‘해외시장 공략 세미나 및 기업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행사는 LA 총영사관이 주관한 K-뷰티 미국시장 공략하기 온라인 세미나에 남원 9개 기업관계자가 참가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세미나는 남원 뷰티 기업의 해외시장 공략 범위를 미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세계 최대 뷰티 시장인 미국의 시장구조와 규제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세미나에서는 관세·규제 변화에 대응한 미국시장 진출 전략을 주제로, 통관 절차와 최신 관세정책, 화장품 분야의 FDA 규제,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등이 다뤄졌으며, 연구원은 참석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별 여건에 부합하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남원시는 2025년 해외 수출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뷰티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약 290만 달러 규모의 MOU·LOI 체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사업은 2026년에도 계속 진행되며 더 많은 수출 성과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특시 남원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산업통상부의 k-뷰티 제품개발 및 수출 지원사업을 통하여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베트남에 이어 미국 시장까지 바이오 뷰티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넓히고 기업들이 실질적인 수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 등급 평가 실시

남원시는 오는 12월 5일까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첨가물제조업체 59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관리기관은 이를 통해 업체별 위생 수준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차등 관리할 수 있고, 업체는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다.

평가 대상은 △영양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신규평가) △신규 평가 후 매 2년이 경과한 업체(정기평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등(재평

가)을 포함해 실시되며, HACCP 적용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항목은 △기본조서(업체 현황 및 규모) △기본관리(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우수관리(법령의 기준보다 우수한 시설 및 위생관리 여부)로 구성되며, 총 120개 항목(2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는 자율관리업체,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로 등급이 구분되며, 자율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2년간 출입·검사가 면제되고,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 대상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독감 예방접종 실시

남원시는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시민의 건강 보호, 겨울철 독감 확산 방지를 위해 무료 및 유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무료 접종 대상자는 남원시 주민등록자 중 △60~64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이며, 유료 접종 대상자는 남원시 주민등록자 중 △14~59세로 접종비는 10,000원이며, 신분증과 무료 접종 대상 증명서(복



지카드 또는관련 증명서 등)를 지참하고 보건소로 방문하면 되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순창군, 구곡순담 힐링 노하우 문화체험 성료

순창군은 지난달 31일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 회원 30명과 함께 ‘구곡순담(구례·곡성·순창·담양) 장수벨트행정협의회 힐링노하우 문화체험’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곡순담 힐링노하우 문화체험’은 구례군, 곡성군, 순창군, 담양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교류 프로그램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문화를 확산하고 여려신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순번제로 열리고 있다.

이날 순창군은 쉼랜드와 강천힐링스와 일원에서 다채로운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원예테라피 △건강운동과 웃음치료 레크리에이션 △족욕·도반목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고 활력을 되찾는 시간을 가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중소기업 법정 의무 교육 온라인강의 무료 지원

임실군이 지역 중소기업 대표자와 근로자가 법령상 매년 필수로 이수해야 할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온라인강의를 무료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법정 의무교육은 개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자체 시행해야 할 교육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기업에 재정 부담이 수반된다.

이에 군은 관내 중소기업들의 재정 어려움을 반영해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중소기업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2025년 4월 공고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수강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무료 지원되는 법정 의무교육은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 인식 개선 △퇴직연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산업안전보건 등 총 6종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교육과정이다.

/임실=진흥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